

### ● 中, 식품안전규제 미국에 역공

펫푸드(애완동물사료) 오염 파문으로 '식품안전 낙제국' 낙인이 찍힌 중국이 미국에 역공을 가했다.

신화통신의 6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닝보(寧波)와 선전(深(土+川))의 출입국 검역국은 미국에서 수입한 비 프로폴리스 캡슐(Bee Propolis Capsule), 콜론 클린 소프트 캡슐(Colon Clean Soft Capsule), 네이처스 조인트 서포트(Nature's Joint Support), 선-메이드 골든 건포도(Sun-maid Golden Raisin) 등 4개 식품에 허용치 이상의 대장균과 곰팡이,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비 프로폴리스 캡슐은 천연항생물질인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한국도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이다.

중국 정부는 비 프로폴리스 캡슐 등 3개 제품을 폐기처분하고 선-메이드 골든 건포도는 반품조치했다.

중국 정부의 품질검사 및 검역 당국인 국가질검총국은 이어 각 지방 검역국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국가질검총국은 미국식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에 대해 계약서상에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해 안전기준 불합치로 인한 통관불허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중국 상하이>진병태 특파원(jbt@yna.co.kr)

2007년 6월 8일

### ● 무리뉴 감독, 애완견 때문에 경찰에 체포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부자군단' 첼시의 조제 무리뉴(44.포르투갈) 감독이 애완견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체포돼 체면을 구겼다.

5월 17일(한국시간)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5일 밤 경찰과 잉글랜드 동물위생 당국 공무원이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무리뉴 감독의 집에 들이닥쳤다.

바로 무리뉴 감독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 요크셔 테리어 때문. 이 애완견이 동물위생법을 따르지 않고 키워지고 있다고 판단, 격리 조치한 뒤 검역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당시 첼시 올해의 선수상 시상식에 참석 중이던 무리뉴 감독은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달려갔고 애완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무리뉴 감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서린던 경찰서로 끌려갔고 처벌은 없었지만 경고 조치를 받은 뒤 풀려났다.

또 무리뉴 감독이 경찰과 옥신각신하는 동안 문제의 애완견은 집 밖으로 도망쳤고 현재 동물 위생 공무

원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애완동물 관련 법률이 엄격한 영국에서 애완견을 키우려면 광견병 예방 접종 및 혈액 검사 등 6개월 간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애완동물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런던경찰청은 "그 개는 1981년 제정된 동물위생법과 1974년 발표된 광견병 규정에 의해 포획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리뉴 감독 대변인은 "동물위생법상 필요한 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무리뉴 감독은 이 애완견을 영국의 믿을만한 상점에서 구입했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모두 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길 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성민 기자(min76@yna.co.kr)

2007년 5월 17일

### 📍 성인당뇨병, 수명 8년 단축시켜

제2형(성인)당뇨병이 수명을 평균 8년 단축시킨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대학 메디컬센터의 오스카르 프랑코 박사는 미국의 의학전문지 '내과학 기록(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최신호(6월11일자)에 실린 연구논문에서 미국 프레이밍햄 심장연구(Framingham Heart Study)에 참여하고 있는 남녀 5천2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수명이 남성은 평균 7.5년, 여성은 8.2년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가 11일 보도했다.

프랑코 박사는 또 50세 현재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장병 발생 위험이 남녀 모두 2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미 심장병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사망위험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남성은 2배, 여성은 1.7배 각각 높게 나타났다고 프랑코 박사는 밝혔다. 한성간 기자(skhan@yna.co.kr)

2007년 6월 12일

### 📍 AI생존자 항체, 예방-치료효과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혈액 속에 형성된 항체가 AI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칸타 수바라오 박사는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의학(PloS-Medicine)'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2004년 AI바이러스(H5N1)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베트남 성인환자 혈액에서 채취해 대량 증식시킨 항체생성 세포를 쥐에 실험한 결과 H5N1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수바라오 박사는 쥐를 H5N1바이러스에 노출시키기 전 또는 후에 이 항체를 투여한 결과 예방과 치료에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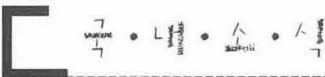
AI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들에는 이 항체가 효과가 없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항체가 채취된 환자가 감염되었던 H5N1바이러스 말고 다른 변종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수바라오 박사는 지적했다.

밴더빌트 대학 의과대학의 독감전문의 윌리엄 샤프너 박사는 독감바이러스에 사람과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는 담비에 대한 실험을 거쳐 건강한 사람에게 테스트 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AI환자들에게 직접 투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I의 유일한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이다.

그러나 이 약이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7년 5월 29일



### ● 경북도 '여(女)수의사회' 사회복지생활시설 봉사활동 나서

경북도 여(女)수의사회(회장 성명숙)는 6월 9일(토) 사회복지생활시설인 「믿음의 집」(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소재, 원장 이영락)을 방문하여 매월 적립한 기금으로 50만원 상당의 찹쌀 40kg, 생필품(휴지) 및 부식류(멸치, 미역, 다시마, 오징어, 건새우 등)를 구입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또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들의 목욕을 도와 주고 방·거실·목욕탕·휴게실 등을 대청소 한 후,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등 「믿음의 집」식구들과 대화의 꽃을 피웠다. 경북도 여수의사회는 도 축산과와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여(女)수의사 27명으로 구성되어 2005년 8월부터 결식아동들에게 중식도시락을 전달하는 후원 사업으로 매년 후원금 100만원씩을 전달하는 등 평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행사는 위문품 전달뿐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봉사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경북도 여수의사회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2007년 6월 11일

### ● 생태체험시설에 225억원 예산 투입

기획예산처는 올해 생태체험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액이 225억원으로 작년보다 58% 증가한다고 6월 7일

발표했다.

기획처는 생태체험시설을 작년 35개에서 올해 46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울산 태화강 겨울철새 서식지, 충북 대청호 자연생태관찰로, 제주도 물환경 학습공원시설 등의 확충에 66억원을 배정했다. 강원도 영월의 생태정보센터, 경북의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보강 등에 159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2008년 람사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지인 경남 창원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에 1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람사협약은 중요한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54개국이 가입했다.

또 도심을 순환하는 광주 남구 철도 부지에 생태 복원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7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도로 개설로 훼손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복원하고 녹지를 연결하는 인천 계양산 자연환경복원사업에는 27억원을 배정했다.

이경옥 기획처 균형발전기획관은 “앞으로 정부는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해 국민들의 생태경관 만족도를 높이고 보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2007년 6월 7일

### ● 영덕군 호랑이 울음소리로 유해동물 퇴치

경북 영덕군이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호랑이 울음소리를 담은 녹음 테이프를 시범 제작해 배포했다.

영덕군은 천적 감소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면서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한 음향 테이프 100개를 만들어 일선 읍·면 농가에 보급했다고 6월 1일 밝혔다.

최근 수년동안 영덕지역에는 멧돼지 등이 야산 자락에 위치한 밭에 내려와 배추와 고구마 등 농작물을 파먹고 경작지역을 쓸대밭으로 만든 뒤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테이프는 경상대 생물음향은행이 보유한 야생동물 퇴치용 음향소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호랑이 울음소리를 활용해 제작됐다.

군은 테이프 제작후 동물 실험을 실시, 호랑이 울음소리를 접한 개가 꿈무늬를 빼는 등 야생동물 퇴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유해조수퇴치용 호랑이음향

영덕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려 2~3년 간격으로 수렵을 실시해 봤지만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한계가 있다”며 “호랑이 소리가 이를 퇴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랑이 울음소리에는 인간이 듣지 못하지만 동물은 감지할 수 있는 초주파수가 포함돼 야생동물 퇴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창진 기자(realism@yna.co.kr)

2007년 6월 1일

📍 “축산물 부패, 변질 소비자 피해 주의”〈소비자원〉

국민 1인당 육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부패, 변질,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과장은 5월 29일 영곡동 소비자원에서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안전토론회에 앞서 28일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최근 수년간 접수된 축산물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축산물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2003년 301건, 2004년 323건, 2005년 413건, 2006년 35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종류 별로 보면 햄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가 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닭고기(26건), 쇠고기 포장육(22건), 돼지고기(12건), 소시지(12건), 닭고기 포장육(10건), 돼지고기 포장육(8건), 기타(184건) 등으로 집계됐다.

홍 과장은 축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 ▲병원성대장균, 캄필로박터,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 ▲잔류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잔류농약, 살충제 등의 유해물질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항생제 내성균 발생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소비자들은 항생제 및 농약 등 축산물의 잔류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사 진단 후 항생제를 사용하는 처방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철저한 차단 방역 및 관리 등 가축질병 감염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및 자발적 회수제도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미검사 축산물, 검사 불합격 축산물 등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대한 기자(pdhis959@yna.co.kr) 

2007년 5월 28일